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승우

Tel. 02)368-6121 / swlee6591@eugenefn.com

Overweight(유지)

산케이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보도에 대한 코멘트

- ✓ 7월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산 및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
- ✓ 세가지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이번 보도가 사실이고, 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
- ✓ 그러나, 일본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고, 미·중이 간신히 봉합한 무역갈등 문제를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아베 정부가 짊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설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됨.

■ What's New:

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G20 미·중 협상은 결국 추가 보복관세를 잠정 유예한 상태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이슈가 됐던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다소 완화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입장에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극우(極右) 반한(反韓)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① 7월 4일부터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산 및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달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②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Analysis:

보도 내용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첨단 소재 등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 우대 조치를 받아왔지만 7월 4일부터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과 심사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 세가지 품목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포토레지스트(or 감광제,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로 일본에서는 스미토모, 신에츠, JSR, FFEM, TOK 등이 국내 업체들에 공급 중이며, 국내에서도 금호석유화학(A011780)과 동진세미캠(A005290),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핵심 레이어에서는 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

불산(or 불화수소, HF)은 반응성이 매우 커 어지간한 금속은 물론이거니와 유리나 실리콘을 녹이는 물질로 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과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의 소재로 사용됨. 솔브레인(A036830), 이엔에프테크놀로지(A102710)가 국내에 공급 중이나, 실은 일본 업체(스텔라, 모리타)들과의 JV(렉트, 팜테크놀로지)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합성 정제해 공급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플렉서블 OLED용 패널 핵심소재임.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 스미토모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 So What: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일간의 외교 관계 악화가 경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가지 품목 중 포로레지스트와 불산은 국내 업체들이 일부 생산가능 하다고는 하지만, 퀄리티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도된 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본 소재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실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져 미·중이 무역 갈등을 간신히 봉합한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일본 정부가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만에 하나, 보도 내용대로 일본의 규제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가뜩이나 재고 부담이 큰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사이클 바닥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산케이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 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9%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1%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19.6.30 기준)